

도내 4개 상의와 지역인재양성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 전주상의·익산상의·군산상의·서남상의 등과 협약...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4개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8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에 맞춰 이뤄졌으며, 전주상공회의소·익산상공회의소·군산상공회의소·전북서남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과 4개 상공회의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양성 △산학연계교육, 현장실습 등 취업역량 강화 △일자리 발굴 및 취업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기술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2년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4개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담당,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교육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 지역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직업계고→지역기업 선취업→지역대학 후학습→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제주자치도교육청 고향사랑 상호기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사업으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lovegohyan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이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는 기관과 기관이 같은 금액의 기부금을 상대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희망자 신청을 받아 오는 16~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공명 분묘를 갖게 돼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행동 중재 지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전주평화회의장에서 장애학생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동중재란 문제행동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는 학교 관리자부터 행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행동 중재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실 속 행동 중재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연수에는 도내 특수학교(원)장, 교(원)감 등 관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최진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진로체험 지원 협력

전북자치도교육청,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

지역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공공)도서관 진흥 △전북지역 취약계층 및 문화소외지역 학교(공공)도서관 활동 지원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진로체험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문화 네트워크 활용, 학교(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학생 독서문화 활성화, 문화소외지역 책 체험 버스 운영 및 도서교육과 도서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독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출판문화 산업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국의 출판문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공공기관과의 교육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IB 관심학교 추가 공모 나서

희망학교 교직원 대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IB 관심학교 추가 공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희망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B 관심학교는 IB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철학 공유와 IB 관련 기초연수를

이수하는 과정으로 학교장과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을 공부하며,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다.

현재 도내에서는 초·중·고 10개교가 IB 관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IB 관심학교로 선정되면 △IB철학 공유 △연구와 평가 혁신을 위한 IB 교사 연수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단계별 운영 등 크게 3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희망 학교는 오는 13~28일까지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해 미래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민안선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을 통해 전북교육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단위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누구를 위한 무상교육비 지원인가?'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아교육회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급액 반복 관련... '유아교육회의서 결정한다'로 지급하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0일 '누구를 위한 무상교육비 지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미 학부모 부담금 0원을 달성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도 할세를 이중지급하려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민5세에 대한 지원금을 전북유아교육회의에서 결정한다"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됐다. 즉

사립유치원으로 원아 한명당 월 5만 원, 전북의 경우 연간 총 23억여원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달성했기에 이로 인한 학부모 부담 해소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특자치도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인 55만7,000원에서 정부지원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1,948원), 교원기부금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지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

한 16만5,000원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왔다는 것.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민5세 유아학비를 기존 28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33만원이 사립유치원으로 매월 지급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이미 0원임에도, 사립유치원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전북유아교육회의(위원장 부교육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민5세 지원금 16만5,000원에서 교육부 추가지원분인 5만원을 인하한 11만5,0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8일 오후 6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대동제 개막식을 갖고 10일까지 3일 간의 열전에 돌입, 각종 무대 공연과 문화행사 그리고 부스행사, 야시장 등 체험형 행사가 대채롭게 펼쳐졌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대동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지역-대학 하나로 묶다

8일부터 자체추산 15만명 지역민 참석 유명 가수 공연·문화행사 등 '다채'

전북대학교 대동제가 행사 기간 자체 추산 약 15만명의 지역민이 찾는 등 대학과 지역이 하나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전북대 대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일까지 3일 간의 열전에 돌입, 각종 무대 공연과 문화행사 그리고 부스행사, 야시장 등 체험형 행사가 대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대중가수 공연에는 첫날인 8일은 김장훈과 잔나비 등이 9일에는 데이식스와 태양 등이 무대에 올라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둘째날에만 무려 8만 여명이 운집해 폭발의 축제를 즐겼다.

마지막 날에는 에쉬아일랜드와 창모의 공연에 이어 지난해 건지발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스타 싸이 등이 무대에 올라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전북대의 성숙한 안전관리 역시 빛을 발했다. 대동제 준비를 위해 전북대는 학생지원과를 중심으로 행사 2주 전부터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계도활동과 응급차량 배치 등 긴밀한 공조를 펼쳤고, 전북대 안전보건관리부에서는 이 기간 안전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내내 전북대는 직원과 학생 등 하루 250여명을 투입해 대운동장으로 몰리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했고, 경찰과 소방도 하루 100명이 넘게 투입돼 큰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로 치러졌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많은 학생과 지역민들이 모이는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사고 없는 축제를 치를 수 있었다"며 "지역민의 축제로 거듭난 전북대 대동제가 성숙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에서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대동제가 작은 사고 없이 성대하게 치러져 기쁘고 감사하다"며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새로운 창조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화합의 향연으로 더욱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전주대, 지역사회 협력 유학생 지원기관에 감사패

굿윌센터 등 3곳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조기 정착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관 3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굿윌센터(센터장 안웅현), 위드유센터(센터장 변호상), 전주글로벌문화센터(센터장 김태영)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은 대학 인근에 센터를 설립,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한국어 교실 등 유학생들의 한국 정착과 문화 적응 등을 적극 도왔다.

박진배 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유학생들이 더 나은 한국 생활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다"며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애써 준 지역사회와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굿윌센터(안웅현 센터장)는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적이나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유

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협업업무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사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급식종사자, 시설관리, 미화원 등 현업업무 종사자 중 참여를 희망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작업 현장과 실생활 공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안내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전북 근로자 건강센터와 협력해 전문적인 운동처방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